

高麗時代 兒童養育 研究

— 高麗史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ildrearing in Koryo Dynasty

— Focusing on the Koryo Dynasty History —

강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 사 신 양 재

Dept. of Home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

Lecture : Yang Jai Shin

〈목 차〉

I. 序 論

II. 高麗史에 나타난 兒童養育 分析

III. 結論 및 論議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ions and the practices about childrearing in the Koryo Dynasty(918-1392 A.D.).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historical method and the literatures of analysis are the Koryo Dynasty History.

According to the results,the conceptions of childhood in its boundary were that the point at which childhood ended was the age of 15, which was sud-devided into three of different periods. And the conceptions of childhood in its nature and its ideal traits were that child's ability was determinated innately and intellectual features and mutual understanding of others were emphasized as its ideal traits. Also, the practices of childrearing in Koryo Dynasty were that a child was carried on adult's back, and that parents prayed for giving birth to their child, and finally that the role expectation toward childrearing was affectionate caring. Moreover, there were the child welfare work and the educational system in Koryo Dynasty. Through this study, we can have access to the understanding about cultural transmission process of childrearing in Korea.

1. 서론

1. 問題提起

아동양육이란 아동의 심신유지에 필요한 보호와 아울러 아동이 유능하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사회화과정으로 이루어진(Gegas, 1976) 일련의 활동이다. 그런데 아동양육의 특성과 질은 부모행동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시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igner, 1979). 아동양육과 밀접한 兒童觀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접근한 일군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역사적 시기에 따라 兒童期나 父母役割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Ariès, 1962; Kessen, 1979)고 한다. 특히 아동기 개념에 관한 역사적 접근의 대표적 연구자로 꼽히는 Ariès(1962)는 성인과 분리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시기로서의 아동기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 발전과의 밀접한 연관에서 형성된 근대사회의 산물로서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Ariès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접근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의 하나인 現在主義(Presentism), 즉 현재를 준거틀로 사용하여 과거를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는 현대라는 입장에서 아동기를 보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요즘의 아동기 개념이 결여된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회는 아동을 성인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대의 아동기 개념과 다른 방식으로 인식했던 것이다(Archard, 1993). 더우기 그의 주장안에는 서구사회 중심의 自民族中心主義(ethnocentrism)라는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Archard, 1993). 따라서 오늘날 서구사회 이외의 문화에 있어서 아동기의 範圍, 特性, 意味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아동양육에 관한 기존 연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앞서와 같이 서구중심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비서구문화에의 적용에 있어 그 한계가 지적(Grusec & Lytton, 1988)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연구패러다임상에 있어서의 문화적 적합성의 문제로서, 西歐中心的 圖式은 현상에 적절한 이해의 틀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서구 문화의 중요한 측면을 식별

하는 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ussell, 1984). 또한 二重性이라는 한계때문에 제 3세계의 現代의 部門에만 제한적으로 설명력이 있을 뿐 傳統的 部門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Moghaddam, 1987). 이와 같은 문제 지적은 文化脈絡(context)내에서 아동 발달을 탐색하고,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방법 채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그 경로를 같이 한다(Nsameng, 1992).

그런데 문화는 이와 같이 아동 發達의 脈絡을 構成하고 定義하게 되는데, 이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역사 전개 과정안에서 精巧化를 통해 傳承되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적 맥락에서의 아동양육에 관한 이해는, 역사적 연구 방법으로서 그 적합성을 보증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한다. 또한 역사적 연구방법은 단순히 과거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시대 상황이 그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며, 또한 그 현상이 어떻게 변모 발전해 왔는가를 通時的으로 고찰하게 해준다(車培根, 1990). 즉 아동양육연구에 歷史的 觀點을 도입하여, 시대의 변천과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양육의 연속적 측면과 비연속적 측면을 밝히고, 그것을 維持 혹은 變形시킨 요인과 기능을 알아내는 것은 오늘날의 아동양육현상을 이해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동향을 예견하는데 도움이 되는(金玉蓮, 1992) 꼭 필요한 작업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국내 연구(禹英姬, 1989; 柳點淑, 1987, 1991; 孫直銖, 1981; 金玉姬, 1985; 池英淑, 1989; 李貞德·宋洵, 1993)가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規範의 內容의 교환서를 중심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행해졌던 아동 양육의 면모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한 감이 있으며, 연구 대상 시기도 朝鮮時代에서 더이상 소급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련 연구와 일별하여 분석 대상 시기를 高麗時代로 하여, 그 당시를 기술한 史料에 나타난 아동양육을 분석하여 아동양육의 文化的 傳統이 형성되는 過程을 파악하고자 한다.

高麗時代는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전환되면서

그 문화의 질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려 놓아 한 국사에서 커다란 문화적 전환기를 이루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前 시대의 商品的 觀念이나 古代宗教의 觀念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국가적 차원의 佛敎思想과 儒學思想이 체계화되고 발전함으로써 그 문화의 폭이 또한 넓어졌다(金哲煥, 1990). 고려의 불교는 보다 民衆 佛敎의 성격으로 전환되어, 늦어도 전통적인 사회기반이 변화되기 시작한 고려말까지는 고려인의 생활의식 저변에까지 그 요소가 침투되었다. 불교는 정신활동에는 물론 禮制에 속한 喪·祭禮에 특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는 고려시대의 사회구조에도 그 특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유학은 官人의 교양으로서 學의 기초를 이루었고, 고려후기에는 性理學을 수용하여 점차 性理學的 禮制가 생활로 침투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許興植, 1986).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고려는 土着信仰의 氣風과 佛·儒의 思想的 竝進으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의 傳統文化基盤을 確立함으로써 文化史的으로 지레점이 된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틀 안에서 아동양육 현상을 이해한다고 할 때, 고려 시대는 전술한 바와 같은 문화사적 의의가 있는 시대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동양육의 전통 규명을 위한 일부로서, 고려사에 나타난 아동양육을 분석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兒童觀은 어떠한가? 둘째,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시대 兒童養育 實際는 어떠한가? 셋째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아동을 위한 社會制度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당시의 家族·親族·身分 制度·宗教·支配의 思想體系 등의 역사적 상황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개의 아동발달 연구에서 부모 역할을 중요시 하는데 반해, 부모 자신의 문화의 관념이나 관행의 사회화를 통해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행동을 학습해 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등한시 해온 것(Harkness et al., 1992)이 사실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부모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특정 양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 맥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

며, 본 연구는 그에 관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갖고자 한다.

2. 研究方法

전술된 연구문제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문헌으로 高麗史를 선정하였으며, 그것은 문화적 맥락 이해에 있어서 문화 내부의 관점을 중요시한다는 입장(金泳燦, 1982)과 실제로 행해진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는 본 연구의 범의로부터 설정된 것이다.

조선초기에 鄭道傳이 먼저 고려국사를 편찬한 후로 몇 차례의 改修作業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竇宗瑞, 鄭麟趾 등이 世宗 31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 후인 文宗 元年에 완성한 史書가 高麗史이다. 그 내용은 世家(46권), 志(39권), 表(2권), 列傳(5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世家는 군주에 관한 기록으로 太祖에서 恭讓王까지 32왕을 수록하고 있고, 세가 다음으로 天文, 曆, 五行, 地理, 禮, 樂, 輿服, 選舉, 百官, 食貨, 兵, 刑法 등의 文物의 변천을 서술한 志를 두고 있고, 다음에 表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列傳을 두어 后妃傳, 宗室傳, 諸臣傳으로 구성하였는데 총 1,008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고려사는 원전사료의 충실한 수록이라는 편찬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편찬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어 객관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邊太燮, 1982).

비록 고려사 열전에 등장한 인물들은 조선 초기의 史家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邊太燮, 1982), 傳記의 特性을 지니고 있어서 고려시대의 아동양육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있다. 傳記란 기술된 사람의 삶을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기술하여 그가 겪은 경험과 활동의 사실은 물론 그의 성격, 기질, 환경도 밝혀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李明燮, 1985) 기록된 인물의 수 년시절의 모습에 비교적 상세히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은 동아대학교 고전연구실에서 낸 國譯 高麗史,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에서 낸 北譯 高麗史 등의 번역을 참조하여 原典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고려사 안에서 아동이나 양육과 관련된 사례를 수집했는데, 예를 들면 幼, 兒, 童, 孩, 蒙, 父, 母 등이나 生, 養, 育 등이 있어 아동양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지는 사례를 우선 추출해 내고, 다음으로는 이들 사례들을 아동관, 아동양육실제, 아동을 위한 사회제도 등의 문제영역별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사례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 보았다. ① 兒童觀 : 여기서는 아동기의 범위, 아동 본성, 아동에 관한 이상적 특성을 하위 내용으로 하여 兒童期 概念을 분석하였다. ② 養育 實際 : Gegas(1976)는 아동양육역할을 보호와 사회화의 두 차원으로 보았고, LaRossa와 Reitzes(1993)는 지지와 통제 의 두 차원으로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을 保護와 教育의 두 하위차원으로 보려 한다. 즉 보호는 신체적, 심리적 기본육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양육활동이며, 교육은 사회화과정으로서 아동이 유능하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하는 노력을 말한다. 이러한 분석범주를 가지고 각 차원 별로 어떤 활동이 행해졌으며, 아동양육에 따른 역할기대와 양육자는 누구였는지를 분석하였다. ③ 社會制度 : 여기서는 아동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양육 실제와 마찬가지로 보호와 교육의 두 하위차원으로 보았다.

II. 高麗史에 나타난 兒童養育 分析

1. 兒童觀

고려사에 나타난 아동기 範圍, 年齡區分 및 理想의 特性 등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兒童期 範圍 및 年齡區分

아동기 범위에 관한 규명은 양육 활동이 출발하게 되는 대상의 범위를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아동양육에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는 통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사회에 들어와서 강조된다는 논의(도종수, 1991)로 볼 때, 전통사회에 있어 미성년기를 아동기 범위로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고려시대의 아동기와 성인기의 경계를 보면,

- ① 國制 民年十六爲丁始服國役 六十爲老而免役(卷79 志33 食貨2 戶口)
- ② 其餘兩班及內外白丁人子 十五歲以上五十歲以下 選出充補(卷81 志35 兵1 兵制)
- ③ 王怒停殿試命 自今年未十五歲者毋得(卷116 列傳29 王康)
- ④ 丁亥 制兩京及東南州府郡縣一家有三子者 許一子年十五剃髮爲僧(卷8 世家6 文宗 己亥13)
- ⑤ 前王命 都評議司女年十六歲以下十三歲以上 毋得擅嫁 必須申聞 而後許嫁 違者 罪之(卷32 世家32 忠烈王 丁未33)
- ⑥ 州俗 男年十五以上歲貢豆一斛(卷121 列傳34 金之錫)

①에서 백성들은 나이 16세부터 장정으로서 나라의 병역과 부역을 부담했다는 점, ②에서는 병역에 있어 15세 이상의 양반·백성의 아들 가운데에서 보충했다는 점, ③에서 연령 15세 미만인 자에게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 말라는 내용, ④에서 한 집에 아들이 3명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한 명은 15세가 되면 승려가 될 수 있었다는 점, ⑤에서는 나이 13세이상 16세미만 처녀들은 관청에 보고해서야 시집갈 수 있었다는 점, ⑥에서 나이 15세 이상 남자는 해마다 콩 1섬씩 바치게 했다는 내용 등에서 볼 때, 아동기의 경계가 되는 연령은 15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부터는 실제로 성인의 역할이 부여되었고 성인의 신분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아동기는 15세를 경계로 그 안에서 다시 연령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 養異姓男 與者笞五十 養徒一年 無子而捨去者二年 養女不坐 其遺棄小兒三歲以下異性聽養(卷84 志38 刑法1 戶婚)

- ② 文宗二十二年 制凡人無後者無兄弟之子 則收他人三歲前棄兒養 以爲子即從其性 (卷84 志38 刑法 戶婚)
- ③ 依律文 八十以上十歲以下及篤疾例論 減死配島 (卷85 志 39 刑法 恤刑)
- ④ 少孤無養盲者 限十歲官給糧 過限者許從所願居住 (卷80 志34 食貨3 賑恤)

①은 형법의 戶婚條에 나타난 항으로 姓氏가 다른 남자 아이를 기르는 경우에, 애를 준 자는 매 50대를 치고 기르는 자는 徒刑 1년에 처하며 자식이 없으면서 아이를 버린 자는 2년에 처하는데, 여자를 기르는 자는 죄로 되지 않으며 세살이 못되어 내버린 아이는 성씨가 다른 자가 데려다 기르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②는 文宗 22년에 명령을 내려 평민으로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 형제의 아들이 없으면 세살 전 내버린 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아들을 삼되 곧 자기의 성을 따르게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예로 볼 때 세살은 의미있는 연령의 경계가 되고 있다.

또한 ③은 법률조문에 나타난 80세 이상 10세 이하와 重病者에 관한 규례의 적용 사례에 관한 것인데, 이 규례에 따르면 범법자가 10세 이하인 경우에는 형을 감하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10세이하의 연령은 실제 법의 강제력에서 예외로 간주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연령경계임을 말해주고 있다. ④는 어려서 고아로 되어 양육할 자가 없는 아이들은 10세까지 官家에서 식량을 주도록 하고 10세 이상 된 자에게는 그 소원에 따라 거주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서도 10세는 중요한 연령경계를 나타낸다.

이상으로 볼 때 3세, 10세, 15세는 각기 다른 사회적 기대를 지니는 연령경계로서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세 이전은 젖먹이로서 사회의 관습적 제한에서 벗어난 시기로, 10세 이하의 법의 적용대상에서 면제되는 시기로, 15세 이하의 병역과 부역 같은 성인의 과업에서 자유로운 시기로, 이처럼 각 연령구분의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

2) 兒童 本性

일반적으로 아동의 생득적 성질에 관한 판단에 따라 아동양육의 목적, 내용,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金玉蓮, 1992). 高麗史 列傳에 나타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의 양육사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아동 본성에 관한 개념을 밝혀 보았다.

- ① 怡生而貌魁梧 早有大志 安珣嘗見之曰 後當貴 (卷108 列傳21 金怡)
- ② 幼在襁褓 外王父李藏用見之曰 此兒必克家好養之 (卷109 列傳22 朴全之)
- ③ 七歲受書輒成誦 諸每見警句泣曰 興吾門者其汝乎 (卷106 列傳19 尹譜)
- ④ 生而姿相不凡 外王父俞千遇見而奇之曰 兒他日必貴 (卷108 列傳21 閔宗儒)
- ⑤ 臣聞 人之禍福貴賤 皆稟於有生之初 當順受之 (卷93 列傳6 崔承老)

①은 金怡는 나면서부터 외모가 큼직하게 생겼고 어려서 부터 큰 포부를 가졌으며, 安珣이 그를 보고 후에 귀하게 되리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고, ②는 朴全之가 어려서 아직 강보에 싸여 있을 때에 외조부 李藏用이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반드시 前代의 富貴를 계승할 것이니 잘 기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며, ③은 尹譜의 유년시절에 관한 내용으로 그는 한번 배우면 곧 외웠으며, 尹譜(조부)가 尹澤의 警句를 외우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했다는 내용이다. ④는 閔顯이 나서부터 출중하며, 외조부 俞千遇가 그를 보고 후일에 귀하게 되겠다고 한 내용이다. 이들 ①, ②, ③, ④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 미래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신념이다. ④에서도 역시 사람의 화복과 귀천은 모두 다 출생할 때에 타고 나니 마땅히 순종하여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의 생득적인 면을 중요시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아동 본성에 대한 개념은 胎夢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통사회에서는 부인이 잉태를 하게 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꿈을 꾸게 되는데 이를 태몽이라고 하였다. 이 태몽으로 태아의 운명을 예

언하는데 이것은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준다(李景姬 外, 1994). 高麗史에는 胎夢에 관한 사례가 많은데,

- ① 嘗夢 登鵠嶺施流溢國中盡成銀海 卜之曰 生子則王有一國(卷88 列傳1 獻貞王后 皇甫氏)
- ② 妃誕夕 瑋夢 有黃大旗 豎於其第中門 旗尾飄縈於宣慶殿鵠尾 妃生瑋奇愛之曰 此 女後當遊宣慶殿(卷88 列傳1 恭毅太后任氏)
- ③ 初凝母有娠 家有黃瓜蔓 忽結甜瓜(卷92 列傳5 崔凝)
- ④ 忽夢 有小兒從燈柱而下 奉而懷之 因有身及生(卷99 列傳12 王世慶)
- ⑤ 母夢 五色雲間有衆環擁一青衣童 自天墮懷中 遂有娠及生(卷103 列傳16 金慶孫)
- ⑥ 初方慶母有娠 屢夢餐雲霞 嘗語人口 雲氣常在吾口鼻 兒必神中來(卷104 列傳17 金方慶)
- ⑦ 母夢 日入懷 因有身(卷105 列傳18 趙仁規)
- ⑧ 初母夢 天爛赤日輪帶赤暈入懷中 因有身(卷108 列傳21 金怡)
- ⑨ 母高氏夢 明星入懷中生(卷110 列傳23 金台鉉)
- ⑩ 母李氏有娠 夢抱蘭盆忽墮 驚寤而生(卷117 列傳30 鄭夢周)

①은 소변이 나라를 뒤덮어 바다가 되는 꿈, ②는 中門에 세운 황색 깃발 꼬리가 宣慶殿(왕후의 처소) 처마끝을 싸고 돌며 휘날리는 꿈, ③은 오이줄기에 참외가 열리는 꿈, ④는 훗대로부터 어린 아이가 내려오는 것을 가슴에 품었다는 꿈, ⑤는 동자 하나가 공중에서 자기 품으로 떨어졌다는 꿈, ⑥은 구름과 안개를 들며 마시는 꿈, ⑦은 해가 배속으로 들어 오는 꿈, ⑧은 해가 품안으로 들어 오는 꿈, ⑨는 별이 품안으로 들어 오는 꿈, ⑩은 난초 화분을 안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는 꿈이다. 이러한 태몽에 관한 기록들은 태몽이 태어난 아이의 운명을 예언한다고 보고 아동능력의 선천성을 중요시 하는 아동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아동이 갖는 공리적 가치에 관한 내용을 들어 볼 수 있다. 李毅傳에 보면

夫人之生子鞠之育之 將以望其反哺也 無尊卑之別華夷之間 其爲天性一也 抑彼國俗寧使男異居女則不出 若爲秦之贅婿然 凡致養于父母者有女之尸焉 故其生女也思斯勤斯日夜 望其長能有以奉養(卷109 列傳 2 李毅)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후일에 그의 덕을 보려는 것이라는 조목에서 자녀가치가 부모 부양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고려 풍속에 남자가 본가로부터 떠나 살지언정 여자는 집을 떠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임무로 되어 있다는 내용에서 부모 부양에 딸이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崔在錫의 연구(1983)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고려시대 가족의 雙邊의 特性을 나타내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3) 兒童의 理想的 特性

高麗史 列傳에서 幼年시절에 관한 기술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기대했던 이상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추출된 인물들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바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유년기에 나타난 모습은 후대에 모범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고려사는 아동에게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특성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이들을 정리한 결과 <표 1>과 같고, 이를 知的 측면, 情意的 측면, 身體 측면의 세 범주로 분류해본 결과 <표 2>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이상적 특성으로 知的 측면에서 이해력(悟), 지각능력(聽), 신속한 문제해결력(敏) 등의 지적 능력을 기대하며, 학업과 관련해서 글을 잘 짓고(屬文), 책읽기와 학문을 많이 하고(讀書, 好學, 力學), 암기력이 좋은(記文, 誦) 등의 특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情意的 측면은 관대하고(厚), 뜻이 크고(大志), 근면하고(勤), 바르고(端, 雅), 조심성이 있고(恪), 맑고(淑), 용감하고(勇), 교만하지 않고(不驕), 따뜻하고(溫), 감정표현이 적절하고(不以喜怒妄加人), 성품이 한결같고(耿介), 절개

〈표 1〉 고려사에 나타난 아동의 이상적 특성

출 처	원 문	특 성
권 88 열전 1 宣靖太后金氏	自幼勤女功	勤女功
권 89 열전 2 明德太后洪氏	生而聰慧端恪	聰慧, 端, 恪
권 90 열전 3 通義侯 僑	生則英奇妙有淑質	淑
권 92 열전 5 崔凝	自幼力學既	力學
권 92 열전 5 龔直	自幼有勇略	勇, 略
권 93 열전 6 崔承老	承老性聰敏好學善屬文	聰, 敏, 好學, 屬文
권 94 열전 7 李周佐	幼聰悟	聰, 悟
권 95 열전 8 孫冠	幼好學以文學名	好學, 文
권 95 열전 8 任懿	薄幼穎悟善屬文	悟, 屬文
권 95 열전 8 任懿	沆幼能文姿朗秀可愛不以富貴驕人	文, 姿朗秀, 不驕
권 97 열전10 郭尙	自幼不茹葷不從群兒戲 常獨處一室力學	不戲, 力學
권 99 열전12 李純佑	純佑幼能屬文	屬文
권 99 열전12 玄德秀	幼聰悟異常	聰, 悟
권 99 열전12 崔均	自幼才學出群	學
권 99 열전12 咸有一	兒輩但當正直節儉以俟命耳	正, 直, 節, 儉
권101 열전14 王珪	年七歲爲東宮學友性溫雅敏厚 羔容儀有器局未嘗以喜怒妄加人	溫, 雅, 敏, 厚, 羔, 未以喜怒妄加人
권102 열전15 李奎報	奎報幼聰敏九歲能屬文時號奇童	聰, 敏, 屬文
권102 열전15 李仁老	自幼聰悟能屬文善草隸	聰, 悟, 屬文, 草隸
권102 열전15 趙文拔	幼聰敏俊逸讀書輒記文	聰, 敏, 讀書, 記文
권104 열전17 羅裕	益禧幼習武藝不暇讀書 而性耿介慕節義恥與人爭	習武藝, 耿介, 節, 義, 恥與人爭
권105 열전18 鄭可臣	生而穎悟讀書作文	悟, 讀書, 作文
권105 열전18 趙仁規	生而穎悟	悟
권106 열전19 金坵	自幼善屬詩文	屬詩文
권106 열전19 尹譜	七歲受書輒成誦	誦
권108 열전21 金怡	怡生而貌魁梧早有大志	魁梧, 有大志
권109 열전22 尹宣佐	生而穎異七歲能屬文	屬文
권109 열전22 安軸	生而穎悟力學	悟, 力學
권109 열전22 崔濬	濬幼穎悟九歲能詩既	悟, 詩
권110 열전23 韓宗愈	自幼瞻視異衆性厚重軀幹魁偉 望之儼然	厚, 重, 軀幹魁偉 儼
권115 열전28 李穡	生而聰慧異常讀書輒誦	聰, 慧, 讀書, 誦
권118 열전31 趙浚	自幼惆備有大志	惆, 有大志

〈표 2〉 이상적 특성의 범주별 분석

영역	특 성()*	계(총67)
知的 영역	慧(2), 略, 聰(7), 敏(4), 悟(8), 力學(3), 好學(2), 讀書(3), 屬文(詩)(9), 記文, 誦(2), 草隸	43
情意的 영역	勤, 端, 恪, 淑, 勇, 不驕, 溫, 雅, 厚(2), 不以喜怒妄加人, 耿介, 節, 義, 恥與人爭, 有大志(2), 重, 儼, 惆	19
身體的 측면	姿朗秀, 羔, 習武藝, 魁偉(2)	5

* ()는 두번 이상 나타난 빈도

가 있고(節), 의리가 있으며(義), 다른 사람과 다툼을 싫어하며(恥與人爭), 신중하고(重), 위엄이 있고(嚴), 대범한(個) 등의 특성이 언급이 되었다. 신체적 측면은 얼굴이 맑고 준수하며(姿朗秀), 용모가 아름답고(羔), 신체가 크다(魁梧, 魁偉)는 특성이 나타났다. 분포로 볼 때는 지적 측면이 월등히 많이 기대되었으며, 그 다음이 정의적 측면이고, 신체적 측면은 매우 소수가 나타났다.

2. 兒童養育 實際

여기서는 고려시대에 실제 어떤 아동양육행위가 나타났는가의 내용 측면과 양육행위에 따른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자에 관한 양육 주체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았다.

1) 兒童養育 內容

아동양육은 보호와 교육의 두 차원으로 보았다. 아동양육의 보호 차원에서 행해진 내용에 관한 기록은 극히 희소하다.

- ① 所取 皆勢家乳臭之童 時人欺之爲粉紅榜 以其兒童好著粉紅衣也(卷74 志28 選舉2 科目)
- ② 裴負其兒(卷121 列傳34 李東郊의妻 裴氏)
- ③ 文氏有二兒 負幼携長將走(卷122 列傳34 康好文의妻 文氏)
- ④ 父殷舍仕新羅至元甫 久無嗣禱而生承老(卷93 列傳6 崔承老)
- ⑤ 初純佑母朴氏點燈庭中 祈嗣于天(卷99 列傳12 李純佑)

①은 아동의 의생활의 한 측면으로 일부 아이들이 분홍옷을 입었다는 기록이며, ②와 ③은 아이를 업고 다녔다는 기록이다. ④와 ⑤는 아이들이 없어 기도를 드리고 낳았다는 기록이다.

보호 차원 이외에 교육차원에 관한 내용도 고려사에 나타나 있으나 보호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발견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 ① 教子孫有方(卷110 列傳23 金台鉉)
- ② 永幼從師學(卷97 列傳10 李永)
- ③ 國俗 幼必從僧習句讀… 顛十歲出就僧舍學(卷108 列傳21 閔宗儒)

①은 자손을 가르침에 있어서 일정한 규범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 규범의 내용은 상술되어 있지 않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지향을 가진 가정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그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른 자료의 보완으로 더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②는 어려서 선생에게서 글공부를 했고, ③은 나라 풍속에 어린 아동들은 의례히 승려로부터 글읽는 법을 배우기로 되어 있어, 閔顛은 10세 때에 집에서 나와 절에 가서 글을 배웠다는 내용이다. ②와 ③은 당시의 초등교육의 일부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 ②는 서당에서, ③은 절에서 배웠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서당에 관한 명기된 자료가 없어 당시의 서당의 교육상황을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孫仁鍊, 1993), 宋나라 徐兢의 高麗圖經 卷40 儒學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서당과 절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②와 ③은 그 한 예로 보인다.

한편 아동 놀이는 중요한 사회화 기제로서 장차의 여러 역할을 준비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아동놀이의 허용은 교육차원에 분류된다. 이에 관한 사례를 보면,

- ① 宮奴取里中兒紙鳶以獻 問汝安得此以實對(卷33 世家33 忠宣王)
- ② 國俗 以四月八日是釋伽生日 家家燃燈 前期數旬 群童剪紙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求米市爲其費 謂之呼旗(卷40 世家40 恭愍王 癸卯12)
- ③ 王射于佛福藏 觀群童擲草戲(卷41 世家41 恭愍王 乙巳14)
- ④ 一日將赴衙 聞街上童謠(卷96 列傳9 金仁存)

①은 연놀이, ②는 呼旗놀이로서, 4월8일 석가여래의 탄신 수십일 앞서부터 여러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 막대기에 붙여서 기를 만들어서 서울거리를 외치

고 돌아 다니면서 쌀과 포를 얻어 용돈으로 한 것을 呼旗라 하였다. ③은 아이들의 풀던지기놀이에 관한 것이다. ④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동요를 불렀다는 기록이다. 따라서 고려의 아동 놀이는 연놀이, 호기놀이, 풀던지기놀이, 동요부르기 등이 있었다고 하겠다.

2) 兒童養育 役割期待

아동양육 역할은 그에 대한 共有된 概念과 期待에 근거하여 수행된다는 관점(Burr, et al., 1979)으로 볼 때, 공유하고 있는 역할기대는 아동양육 실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관한 기록을 보면,

- ① 父母之心於子均也 豈厚於長年有家之女 而薄於無母鬻之兒耶 顧兒之所賴者姊也 若遺財與姊 等恐其愛之或不至養之或不專耳 兒既長則用比紙作狀服緇衣冠穿繩鞋以告於官 將有能辨之者其獨遺四物意蓋如(卷102 列傳15 孫抃)
- ② 祖妣之懷中 似接高堂之膝下 旨甘輟口每加吐哺之恩 軟暖附身幾沐字孤之惠 蓋因撫養以至長成(卷88 列傳1 神靜 王太后 皇甫氏)
- ③ 終以母慈保厥子(卷88 列傳1 恭叡太后 任氏)

①은 판결의 한 장면인데 시집간 딸에게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어린 동생에게는 訟事에 필요한 의복만을 남기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까닭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사랑(愛)과 양육(養)의 역할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에는 맛있는 음식이면 입에 넣었던 것도 빨아 먹여 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의복을 입혀 주는 양육의 모습에서, 품에 안다시피 하여 키우는(撫養) 역할기대가, ③에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그 자손을 보살피었다는 내용에서 慈愛의 역할기대가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동양육자에 대한 역할기대는 지극히 자애로운 양육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양육 역할기대를 저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제재를 가하였다.

- ① 制曰 近來世遺漸降風俗澆薄 不孝不友或棄孤幼去妻妾 … 宜今有司檢察治罪(卷16 世家16 仁宗

癸丑11)

- ② 旗頭軍羅信刃傷所生 棄市(卷17 世家17 仁宗 癸亥21)

①은 어린 자식을 버리면 그 죄를 다스린다는 내용이며, ②는 자기 자식을 칼로 상해한 죄로 棄市刑을 당한 사례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의 포기는 사회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養育役割 遂行者

고려시대 가족연구(崔在錫, 1983)에 의하면 조선 중기 이후와는 달리 고려시대는 妻夫와 妻母를 가족원으로 한다든가 또는 既婚女息과 사위를 가족원으로 하여, 처의 부모나 사위도 자기의 부모나 아들 못지 않게 친화감정에 의거하는 근친자로 간주하였다는 특성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異性에 대해서도 상호친화, 존중의 감정을 가지고 이들을 근친자의 집단인 가족성원에 포함시켰는 바, 이러한 그 당시의 가족특성은 아동 양육에도 반영되어 부모이외의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 ① 生養於祖敏成家(卷103 列傳17 金方慶)
- ② 姨父故相金額聞其言 養于家(卷108 列傳21 閔宗儒)
- ③ 韶齡之年既違慈母 比及幼冲之歲又喪嚴親便歸祖妣之懷中 似接高堂之膝下(卷88 列傳1 神靜王太后 皇甫氏)
- ④ 早喪母 長於姊夫全公義家(卷112 列傳 25 李公遂)
- ⑤ 倍傑妻崔氏賢而無子養其族女(卷95 列傳8 鄭文)
- ⑥ 國俗 納年幼者養于家 待年 謂之預壻(卷27 世家 27 元宗 辛未12년)
- ⑦ 夏四月 京城泥帖佛腹藏里 有盲兒 其父母俱疫死 兒獨與一狗居 兒執狗尾出于路 人施以飯(卷29 世家29 忠烈王 壬午8)

①은 金方慶이 조부 金敏成의 집에서 자랐다는 내용, ②는 閔宗儒가 이모부 金額의 집에서 컸다는 내

용, ③은 유년시절에 모친과 부친이 세상을 떠나 할머니가 키워주었다는 내용, ④는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매부의 집에서 자랐다는 내용, ⑤는 자식을 없어 일가집 딸을 데려다 길렀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할아버지, 이모부(이보), 할머니, 매부(누님)가 양육역할을 담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⑥은 데릴사위제에 관한 것으로 나이가 어린 남자를 받아들여 자기 집에서 양육하여 성년이 되면 결혼시킨다는 내용인데, 장래의 처가부모가 양육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⑦은 눈이 먼 아이가 있었는데 길가에 나오면 사람들이 밥을 주어 동네 사람이 돌보아주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모외에도 조부, 조모, 이모부, 매부, 상차의 처가집, 그리고 동네사람 등이 양육했음을 알 수 있다.

3. 兒童을 위한 社會制度

고려시대에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서 국가적 수준에서 마련된 여러 제도나 배려가 있었다. 먼저 아동의 保護에 관한 문제부터 알아보았다. 아동을 위한 조직적인 복지활동은 20세기의 산물이나 각 시대를 보면 아동보호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 왔다(李素希, 1989). 고려시대에 행한 아동보호 활동을 보면,

- ① 無父母族親孩童有病者 官給租救恤(卷80 志34 食貨3 賑恤)
- ② 少孤無養盲者 限十歲官給糧 過限者許從所願居住(卷80 志34 食貨3 賑恤)
- ③ 御寬仁殿門饗 耆老孤獨篤疾者賜物有差(卷4 世家4 顯宗 辛亥2)
- ④ 有司 量其老幼各賜綿布(卷6 世家6 靖宗 己卯5)
- ⑤ 鰥寡孤獨篤廢疾患者 于闕庭賜物有差(卷12 世家12 睿宗2 丙戌元年)
- ⑥ 鰥寡孤獨篤廢疾者 賜設分物(卷12 世家12 睿宗 丁亥2)
- ⑦ 西京內外老疾幼弱不能自存者 量給米賙恤(卷16 世家16 仁宗 丙辰14)
- ⑧ 庚子饗鰥寡孤獨篤廢疾 賜物有差(卷22 世家22

高宗 甲申11)

①에서는 왕의 명령으로 부모와 친척이 없는 병 걸린 아이는 관가에서 곡식으로 구제토록 하였고, ②는 어려서 고아로 된 아이들은 10세까지 官家에서 식량을 주도록 하고 10세 이상부터는 원하는대로 거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며, ③, ④, ⑤, ⑥, ⑦, ⑧은 주로 노인, 부모없는 아이, 병자 등에게 음식을 먹이고 불품을 주는 救濟活動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아동에 대하여 시설에 의한 보호나 불품 지급의 保護策이 실시되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의 부양을 위한 제도와 產婦에 대한 보호책도 있었다.

- ① 父母俱亡子孫幼弱者 理合恤養其父田全科傳受 待年二十歲各以科受 女子則夫定 科受(卷78 志32 食貨1 田制)
- ② 諸婦人在禁臨產月者 責保聽出 死罪產後滿二十日 流罪以下滿三十日(卷85 志 9 刑法 恤刑)

①은 부모가 모두 없는 어린 아이는 2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과전 전부를 전해 받아 생활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나라에서 아동 부양의 책임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는 구급 중에 있는 부녀가 해산 달에 임박해서는 보증을 세우고 나가게 하되 死刑 罪는 산후 20일, 流刑 罪 이하는 30일로 한다는 형법 조항으로서 산부에 대한 국가의 배려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제도는 官學과 私學을 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기록을 보면,

- ① 今選通經閱籍之儒溫古知新之輩 … 諸州郡縣長吏百姓有兒可教學者 合可訓戒勉篤師資 儻其父母未識國風 爲營家產只見今朝之利 不思他日之榮 謂學習何爲讀書勿益 却妨編柳唯要負薪 其子則沒齒無聞 其親則榮身莫得(卷3 世家3 成宗 丁亥6)
- ② 斯則學無塾黨才未精研 其令有司相得勝地 廣營

學舍 量給田庄 使之金鍊爲眞玉磨成器(卷3 世家 成宗 壬辰11)

- ③ 崔冲收召後進教誨不倦 青衿白布填溢門巷 遂分九齋…每歲署月 偕僧房結夏課 擇徒中及第學優才膽而未官者…世稱十二徒然 冲徒最盛(卷74 志28 選舉2 學校)
- ④ 壬申以孝經論語 分賜閭巷童稚(卷16 世家16 仁宗 甲寅12)

①과 ②는 지방에 설립된 官學의 중등교육기관인 향교에 관한 자료이다. ①의 내용은 경전·의서등에 통달한 학자와 공부에 열심인 자들을 뽑아 12목에 각각 경학박사 1명, 의학박사 1명을 파견하고, 가르칠만한 자제가 있거든 선생에게 배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②는 배울만한 학교가 없어 공부가 미숙한 탓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리들은 좋은 터를 가려서 학교를 건축하고 전장을 급여하며 학생들을 훈련하라는 내용이다. ③은 사립 학교에 관한 기록으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최충의 私學과 十二徒에 관한 기록이다. ④는 仁宗이 孝經과 論語를 향간 아동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당시에 필독서로서 논어와 효경이 장려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Ⅲ. 結論 및 論議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아동양육 전통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시대의 아동양육을 알아보았다. 분석은 고려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헌에서 아동양육 관련기록을 추출하여, 兒童觀·兒童養育 實際·兒童을 위한 社會制度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결과를 研究問題 中心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기범위에 관한 분석에서, 아동기의 경계가 되는 연령은 15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 이상부터는 실제로 성인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아동기는 15세를 경계로 다시 연령구분이 세분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3세이전, 10세이하, 15세이하의 각기 다른 연령단계로 구별된다. 즉

3세 이전은 젖먹이로서 사회의 관습적 제한에서 벗어난 시기로, 10세 이하는 법의 적용대상에서 면제되는 시기로, 15세 이하는 성인 課業에서 자유로운 시기로 구별된다. 朝鮮時代의 人間發達段階를 밝힌 연구(柳點淑, 1989)와 비교해 볼 때, 7세를 기준으로 한번 더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3세, 10세, 15세로 나타난 본 분석과 대부분 일치한다. 한편 高麗以前 時代로 소급하여 보면 三國志 魏誌 東夷傳 기록에 의하면 동옥저에서는 남자는 여자가 10세가 되면 결혼을 약속하고 성인이 되면 여가에 돈을 치루고 정식아내를 삼는다(崔淑卿, 1972, 재인용)는 내용에서 10세가 사회적 의미를 지닌 年齡區分의 경계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金用淑의 韓國女俗史 연구(1990)에 따르면 신라의 길쌈경합은 15-16세 이상의 처녀들이 참가하였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년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는 15세가 成年과 未成年의 年齡境界의 의미가 있었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아동기에 관한 三國, 高麗, 朝鮮의 연령구분은 어떤 연계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추정은 아동양육 실제와 얼마나 유관하게 나타나는가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 본성에 대한 개념에서는 어려서의 모습으로 장차를 예견하거나 태몽을 중시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아동이 타고난 생득적 능력이 장차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佛敎가 당시 고려 사람들의 의식세계에 기반을 잡으면서, 출생을 日月, 星, 山川과 연결시켜 이해하던 재래의 토착신앙적 의식과 불교의 輪廻說이 결합되어, 이것이 출생에 투영되어 豫定說과 유사한 관념이 된 것(許興植, 1986)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현대에도 胎夢에 대한 신념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兒童 本性에서 生得性을 중요시 한다는 아동관의 일부가 전승된 한 면모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러한 아동관을 현대 부모가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검토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에게 기대하는 특성들을 분석한 결과, 知的 측면, 情意的 측면 순으로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지적 측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의 문화전통으로 볼 때 학문은 인간완성이 목표였다(姜信杓, 1983)는 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정의적 영역에 나타난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他人과의 關係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는 自我啓發에 있어서 타자의 존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인식을 중요시한다(Wei-ming, 1985)는 東洋文化의 特性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아동특성은 養育行動의 目標로 그대로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Wolfe, 1970).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행동에 대한 자녀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Bell, 1979). 그런데 이와 같은 자녀의 영향은 실은 아동의 객관적 속성보다는 이에 대한 부모의 해석의 결과이며(Bacon & Ashmore, 1985), 또한 이러한 부모의 해석과정의 일부는 文化的 知識에 근거한다(Dix, Ruble & Zambardo, 1989)는 점, 그리고 부모들이 믿고 있는 아동의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경험의 상대적 비중의 정도는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는 것(Miller, 1988)을 근거로 보면, 우리사회에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年齡의 의미나 兒童本性, 理想的 特性에 관한 규명은 현재의 兒童養育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리라 본다.

한편 고려시대 아동양육실제를 보면, 우선 보호차원에서는 乳兒를 업어서 키우는 것과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업어서 키우는 것은 동양의 특징으로서 이는 양육자와 유아간의 愛着을 형성시켜주며(李景姬 外, 1994), 현대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양육행태이다. 다음으로 교육 차원에서는 아버지에 의한 일정한 家庭教育이 있으며 초등교육이 서당이나 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 놀이로는 연놀이, 呼旗놀이, 풀던지기놀이, 동요부르기 등이 보이는데, 이는 추후의 보완연구를 전제로 하여 그 놀이들이 성인활동의 준비인 機能의 文化化 機制(Schwartzman, 1978)였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놀이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며, 道具使用에 요구되는 대상의 구성성분을 분리시켜, 사용을 위해 새로운 배열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함양시켜 준다(Brunner, 1976)는 점에서 미래 역할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육

활동인 것이다.

한편 양육행위에 대한 역할기대를 보면 慈愛로운 養育役割을 기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양육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제재를 받았다. 또한 아동 양육은 부모외에도 조부, 조모, 이모부, 매부, 동네사람, 장래의 처가집 등에서 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와는 달리 부계제이면서 상당히 쌍계적이어서 가족성원의 범위에 가장의 배우자 방계친이나, 차남이하의 부부나, 기혼여석과 그녀의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가족 특성(崔在錫, 1983)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아동양육에 동네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共同 責任을 지는 社會的 父母의 存在(崔起英, 1993)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아동을 위한 社會制度로서는 아동 보호차원에서 다수의 福祉策이 있었다. 또한 성인이 될 때까지의 부양을 위한 제도와 產婦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官學과 私學의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유지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로 볼 때 고려시대에는 兒童 保護와 教育을 위한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Ariès(1962)의 주장과는 달리 아동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한국전통사회에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高麗史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문헌상의 제약을 갖고 있다. 즉 朝鮮初期 史家의 입장에서 중요시 된 인물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다는 한계로 인하여, 高麗時代의 一般에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高麗의 個人文集이나 高麗에 관한 風俗誌 등의 문헌, 그리고 遺物 資料에 의해서 고려시대의 兒童養育 규명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高麗 以前과 以後의 時代에 관한 분석을 통해 고려와의 연관을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하며, 아울러 現代社會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와 시대의 변천에 따른 아동양육 전통을 규명해 보는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高麗史, 亞細亞文化社影印(동아대학교고전연구실
譯,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譯)
- 2) 高麗圖經, 고전국역총서 119, 민족문화추진회,
1966.
- 3) 姜信杓,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론과 방법
의 인학적 탐색,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 한
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3.
- 4) 金玉蓮, 유아교육사, 서울: 정민사, 1992.
- 5) 金玉姬, 조선조사회의 여사서를 중심으로 한 여성교훈
서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85.
- 6) 金用淑, 한국여속사, 서울: 민음사, 1990.
- 7) 金泳燦, 생활, 문화,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82.
- 8) 金哲煥, 한국문화사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0.
- 9) 도종수, 청소년문제, 고영복(편),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1.
- 10) 邊太燮, 고려사의 연구, 서울: 삼영사, 1982.
- 11) 孫仁銖,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1993.
- 12) 孫直銖,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서울, 성균관대
학교출판부, 1981.
- 13) 禹英姬,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 가훈을 중
심으로 -,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9.
- 14) 柳點淑, 조선 후기 동몽교재의 내용연구,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1991.
- 15) ———, 조선시대의 인간발달단계 및 그 교육내
용, 아동학회지, 10, 1989, 1-18.
- 16) ———,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 고찰, 대
한가정학회지, 25, 1987, 141-152.
- 17) 李景姬 외, 아동발달과 양육, 서울: 형설출판사,
1994.
- 18) 李貞德, 宋洵, 소학에 나타난 동몽기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993, 157-168.
- 19) 李素希, 유아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형설출
판사, 1989.
- 20) 李明燮,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
사, 1985.
- 21) 池英淑, 다산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고찰,
성대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19, 1989, 275-295.
- 22) 車培根,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1990.
- 23) 崔起英, 현대사회와 유아교육, 서울: 교문사,
1993.
- 24) 崔淑卿, 고려이전,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 한국
여성사 I, 서울: 이대출판부, 1972.
- 25) 崔在錫,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3.
- 26) 許興植, 고려불교사연구, 서울: 일조각, 1986.
- 27) Archard, D. Children: Right & Childhood, N.Y.:
Routledge, 1993.
- 28) Ariès, P.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Y.: Vintage, 1962.
- 29) Bacon, M. K. & R. D. Ashmore, How mothers
and fathers categorize descriptions of social
behavior attributed to daughters and sons, Social
Conition, 3, 1985, 193-217.
- 30) Bell, R. Q., Parent, child and reciprocal influences,
American Psychologist, 34, 1979, 821-826.
- 31) Bigner, J. J., Parent-child relations, N.Y.:
Macmillan Publishing, 1979.
- 32) Bruner, J. S., Nature and uses of immaturity,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eds.) Play-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N.Y.: Basic
Books, Inc., 1976.
- 33) Dix, T., D. N. Ruble & R. J. Zambardo, Mothers'
implicit theories of discipline: child effects, parent
effects and attribution process, Child Develop-
ment, 60, 1989, 1373-1391.
- 34) Gecas V., The socialization and child care roles
In F. I. Nye(ed.)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hills: Sage Publication, 1976.
- 35) Grusec, J. E. & H. Lytton, Social development:
history, theory and research, N.Y.: Springer-Ver-
lag, 1988.
- 36) Harkness, s., C. M. Super, & C. H. Keefer,
Learning to be an american parent: How cultural
models gain directive force, In R. D' Andrade and
C. Strauss, Human motives and cultural model,

- Combridge, Co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37) Kessen, W., The american child and ohter cultural in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 1979, 815-820.
- 38) Miller, S. A., Parents' belief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1988, 259-285.
- 39) Moghaddam, F. M., Psychology in the three worlds, *American Psychologist*, 42, 1987, 912-920.
- 40) LaRossa, R. & D. C. Reitzes, Continuity and change in middle class fatherhood, 1925-1939 : the culture-conduct conne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1993, 455-468.
- 41) Nsamenang, A. B., Human development in cultural context : A Third world perspective, N.Y. : Sage Publication, 1992.
- 42) Russell, R. W., Psychology in its world context, *American Psychologist*, 39, 1984, 1017-1025.
- 43) Schwartzman, H. B., Transformations : the anthropology of children's play, N.Y. : Plenum Press, 1978.
- 44) Wei-ming T., Selfhood and otherness in confucian thought, In A. J. Marsella, G. DeVos & F. L. K. Hsu(eds.), *Culture and Self :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 N.Y. : Tavistock Publications, 1985.
- 45) Wolfe, M., Child training and the chinese family, In M. Freeman(ed.), *Family and kinship in chinese socie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